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과 활용을 위한 관종별 사서 인식조사 분석*

Analysis of the Perception Surveys on Librarians by Type of Library for the Collaborativ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Library Materials

신 배 재 (Bae-Jae Shin)**

곽 승 진 (Seung-Jin Kwak)***

목 차

- | | |
|----------------|------------|
| 1. 서론 | 3. 설문결과 분석 |
|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관종별 사서(사서교사 포함)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서들의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종합적 인지도는 관종별 특성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단위 공동보존 운영주체로는 지역대표도서관이 관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awareness survey of librarians by type of library. analyzed the survey results to present the rationale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collaborative preservation and effective use of library materi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eneral awareness of the librarians about the collaborative preservation archive was high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library. the regional Central library was suitable as the main body of the collaborative preservation operation at the regional level.

키워드: 공동보존,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Collaborative Preservation, Regional Central Library, Public Library, Academic Library, School Library, Research Library

* 박사학위논문 도서관 자료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 운영모형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수료(bjshin@korea.kr / ISNI 0000 0004 9285 4846) (제1저자)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jkwak@cnu.ac.kr / ISNI 0000 0004 6812 0586)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1년 7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8월 5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8월 19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3): 259-280,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3.259>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도서관에서 소장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작하는 것은 자료의 보존과 잠재적 이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공간 확보와 자료의 보존과 이용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인 공동보존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지속적인 장서의 증가로 인하여 공간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2020)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전체 장서수는 2015년 93,838,190권에서 2019년 115,074,631권으로 22.6% 증가하였다.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관종의 도서관들도 장서 증가에 따른 공간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이용환경 변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도서관 공간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도서관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광역시도에 신규로 건립된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서 부여한 지역의 공동보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공동보존을 위한 보존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역대표도서관에 조성된 공동보존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관종이 참여하는 공동보존 정책의 추진은 광역시도 내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필요하다.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중에서 공동보존의 대상은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관종을 포함하는 도서관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보존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제한적인 기능을 보완하여 관종별 도서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종별 도서관의 특성과 사서들의(사서교사 포함)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관종별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을 위한 협력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종별 도서관 사서들이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보존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공동보존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그리고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2010년 이후의 연구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한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의 공동보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신지연, 김유승(2011)은 지역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도서관 자료의 이관 및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역대표도서관에 공동보존도서관 설립을 제안하였다. 윤희운(2013)은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 연구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기본원칙, 이관기준, 소유권 문제, 관리운영 주체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박승진 외(2020)는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정책 수립을 위한 사서 인식조사 연구를 통해서 충청남도 내 공공도서관의 현황조사와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공동보존자료관에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보존

자료관의 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윤희윤, 장덕현(2021)은 서울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도서관 자료의 관리와 공간운영을 위한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과 함께 건립방안을 제안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공동보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도서관간 협력과 공동보존을 위한 전문시설의 건립과 운영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단일관중이나 특정지역의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와 인식조사가 있었다.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중의 도서관이 공동보존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다양한 관중의 도서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중별 도서관 사서들의 공동보존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양한 관중의 협력적 공동보존을 위한 사서 인식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보존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전체 2,740개 도서관 4개 관중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사서교사 포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표본수는 210이며 임의표본추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95% 신뢰수준하에서 표본오차는 $\pm 6.8\%$ 이다. 설문

에 대한 응답은 도서관별 1명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PC를 사용하여 설문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 IP의 중복 참여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조사대상 도서관에서 사서들의 복수응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자료수집은 온라인을 통해 PC와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예비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으며 본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문항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도서관의 범위는 국가도서관 통계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NFO 제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관중별 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관중별로는 공공도서관이 1,134개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구분하였다. 대학도서관은 409개 도서관이며 사이버대학과 대학원대학 폴리텍대학 등 기타 유형을 제외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도서관은 전국에 11,744개 도서관중 사서교사가 최소 1인 이상 근무하고 있는 836개 도서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도서관은 개인이나 기업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립 전문도서관을 제외한 361개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표 1〉 참조).

관중별로 집단간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Oneway ANOVA)과 동일집단 부분집합 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간의 상호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해서 응답빈도에 대한 관중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유기술 방식의 주관식 문항은 전체 응답텍스트를 추출하여 개념 범주화와 키워드 빈도분석을 통해서 핵심요인을 정리하였다(〈표 2〉 참조).

〈표 1〉 관종별 도서관 현황

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전체
합계	1,134	409	836	361	2,740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t.go.kr>

* 관종별 도서관수 기준

- 공공도서관: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도서관(조사기준: 2019년)
- 대학도서관: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조사기준: 2019년)
-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1인 이상 근무 도서관(조사기준: 2020년)
- 전문도서관: 사립 전문도서관 제외(조사기준: 2019년)

〈표 2〉 관종별 사서 인식 설문조사 개요

구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전체
응답표본수	91	51	36	32	210
조사대상	• 도서관 사서				
수집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설문조사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 리커트 척도(5점 척도)				
조사기간	• 본설문: 2021년 4월 13일 ~ 4월 23일 ☞ 예비설문: 2021년 4월 9일 ~ 4월 12일(20명)				
분석방법	• 문항신뢰도 분석(척도형 문항) • 기술통계(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석 • 상관분석, 분산분석(ANOVA)				

관종별 도서관의 공동보존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공동보존자료관 인식분야, 운영조직 및 예산 분야, 운영정책 분야, 운영관리시스템 및 디지털아카이빙 분야와 참여자에 대한 일반사항으로 총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한 문항과 일반사항을 포함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항목들은 구조화된 문항의 항목구성에 일부 적용하였다. 특히 운영조직 및 예산 분야에서 공동보존자료관의 운영주체 적합성에 관한 문항과 공동보존 운영모형에 관한 문항은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과는 차별되는 것이다. 설문 문항의 유형은 척도형 6문항, 명목형 15문항, 주관식 4개 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 참조).

3. 설문결과 분석

설문 응답자는 총 210명으로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 91명, 대학도서관 51명, 학교도서관 36명, 전문도서관 32명이다. 성별, 사서근무 경력, 주요 담당업무에 대한 응답자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3〉 사서인식조사 설문지 항목구성

분 야	세 부 항 목	출 처
I. 공동보존자료관 인식(9문항)	Q1. 공동보존자료관 인식도	노지현 외(2013) 서혜란 외(2013) 남영준 외(2018)
	Q2. 공동보존자료관 필요성	
	Q3. 공동보존자료관 시의성	
	Q4.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능	
	Q5.~Q7. 공동보존자료관 참여의향	
	Q8. 공동보존 및 공동활용에 대한 기여도	
II. 운영조직 및 예산(7문항)	Q9. 공동보존자료관 추진시 장애요인	서혜란 외(2013)
	Q10. 공동보존자료관 운영모형	
	Q11.~Q12.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주체	
	Q13.~Q14. 공동보존자료관 위원회	
III. 운영정책(이관, 소유권)(5문항)	Q15.~Q16.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예산	윤희운(2013a), 윤희운(2013b), 강은영, 장덕현(2017), 노지현 외(2013), 강은영, 장덕현(2017), 남영준 외(2018)
	Q17.~Q18. 자료이관 기준	
	Q19. 공동보존자료관 이용대상 범위	
IV. 운영관리시스템 및 디지털아카이빙(4문항)	Q20.~Q21. 이관자료 소유권 정책	남영준 외(2018)
	Q22.~Q24.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	
V. 일반사항(5문항)	Q25. 디지털아카이빙	
	Q26.~Q30. 성별, 경력, 지역, 관종, 담당업무	

〈표 4〉 설문조사 응답자 빈도표

문항	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Q26 성별	남성	85	40.5
	여성	125	59.5
	전체	210	100.0
Q27 사서근무 경력	5년 미만	38	18.1
	5년 이상~10년 미만	35	16.7
	10년 이상~15년 미만	31	14.8
	15년 이상~20년 미만	49	23.3
	20년 이상	57	27.1
	전체	210	100.0
Q29 도서관 종류	공공도서관(지방자치단체)	53	25.2
	공공도서관(교육청)	38	18.1
	대학도서관(일반대학)	44	21.0
	대학도서관(전문대학)	7	3.3
	학교도서관	36	17.1
	전문도서관	32	15.2
	전체	210	100.0
Q30 주요 업무	조직·인사·회계	18	8.6
	수서·정리	39	18.6
	정보서비스 업무	29	13.8
	자료 열람관리	20	9.5
	도서관 정책 및 협력 업무	62	29.5
	도서관 정보시스템 업무	9	4.3
	기타	33	15.7
	전체	210	100.0

전체 25개의 설문문항 중에서 범주형과 주관식 문항을 제외하고 7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형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0.729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문항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계수로 일반적으로 0.7이상일 경우 문항의 신뢰도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Q1(인지도)과의 상관관계 중에서 Q8(자료의 공동보존 및 공동활용), Q13(공동보존자료관 위원회 필요성), Q22(공동보존 운영관리시스템 필요성)과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상관관계 유의확률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척도형 문항인 7개의 문항에 대해서 관중별 집단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Q1(공동보존자료관 인지도), Q13(공동보존자료관 위원회 필요성), Q20(이관자료에 대한 소유권 유형), Q22(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

템 별도구축 필요성) 문항에서 다음의 통계분석표와 같이 집단간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과 동질적 부분집합 검증을 통하여 집단별 평균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표 6> 참조).

3.1 사서 인식 분야

Q1~3번 문항은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관중별 집단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다른 관중의 도서관보다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동질적 부분집합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학교도서관의 경우는 별도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집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보존자료관의 필요성과 시급성 문항은 관중별

<표 5> 문항신뢰도 분석결과

신뢰도 통계량		척도 통계량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평균	분산	표준편차	항목 수
0.729	7	27.26	19.036	4.363	7
항목 총계 통계량					
구 분	척도 평균	척도 분산	전체 상관계수	Cronbach 알파	
Q1 인지도	24.05	14.658	0.242	0.768	
Q2 필요성	22.98	14.167	0.679	0.653	
Q3 시급성	23.34	14.215	0.597	0.665	
Q8.1 자료의 공동보존	23.34	14.006	0.515	0.680	
Q8.2 자료의 공동활용	23.58	14.341	0.470	0.691	
Q13 위원회 필요성	23.16	15.543	0.382	0.711	
Q22 플랫폼	23.13	15.385	0.369	0.714	

〈표 6〉 척도형 변수의 관중별 분산분석 결과표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CTT 유의확률
인지도	집단-간	72.810	3	24.270	15.895	.000
	집단-내	314.547	206	1.527		
	전체	387.357	209			
위원회 필요성	집단-간	11.537	3	3.846	5.099	.002
	집단-내	155.363	206	0.754		
	전체	166.9	209			
소유권 유형	집단-간	24.385	3	8.128	5.171	.002
	집단-내	323.811	206	1.572		
	전체	348.195	209			
시스템 구축 필요성	집단-간	17.731	3	5.91	7.139	.000
	집단-내	170.536	206	0.828		
	전체	188.267	209			

〈표 7〉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식도 항목별 빈도표

문항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Q1 (인지도)	1. 전혀 모른다	33	15.7
	2. 모른다	35	16.7
	3. 보통	38	18.1
	4. 알고 있다	62	29.5
	5. 매우 잘 알고 있다	42	20.0
	전체(평균 3.21)	210	100.0
Q2 (필요성)	1. 전혀 필요없다	2	1.0
	2. 필요없다	6	2.9
	3. 보통	19	9.0
	4. 필요하다	86	41.0
	5. 매우 필요하다	97	46.2
	전체(평균 4.29)	210	100.0
Q3 (시의성)	1. 전혀 시급하지않다	3	1.4
	2. 시급하지 않다	7	3.3
	3. 보통	53	25.2
	4. 시급하다	87	41.4
	5. 매우 시급하다	60	28.6
	전체(평균 3.92)	210	100.0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3개의 문항의 평균에서는 <필요성> <시의성> <인지도>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Q4는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이 수행해야

할 기능에 대한 문항으로 선택항목은 6개의 범주화 항목으로 구조화하였다. 2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누적빈도를 적용하였다. 응답결과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능으

〈표 8〉 인지도의 동질적 부분집합 분석표

	관종별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3
Duncan a,b	학교도서관	36	2.03		
	대학도서관	51		3.06	
	전문도서관	32			3.59
	공공도서관	91			3.64
	CTT 유의확률		1.000	1.000	.868

로 이관자료의 공동활용>지역특성화자료의 수집 및 이용>중요자료의 디지털화>이관자료의 영구보존 처리>보존기법의 개발과 보급>훼손자료의 복원 및 수리 순으로 나타났다. 관종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료의 공동활용, 특성화 자료의 수집, 중요자료의 디지털화 등을 공동보존자료관의 주요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Q5는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 참여의향에 대한 문항으로 참여하겠다는 89%로 가장 많았

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중에서는 학교도서관이 10명(응답자 36명중 27%) 대학도서관이 8명(응답자 51명중 15%)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도서관(응답자 91명중 3%)과 전문도서관(응답자 32명중 6%)은 낮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동질적 부분집합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 2개의 동질적 부분집합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9〉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기능 항목별 빈도표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이관자료의 공동활용(대출, 열람, DDS 등)	108	26.5
지역특성화 자료의 수집 및 이용	103	25.2
중요자료(희귀본 등)의 디지털화	83	20.3
이관자료의 영구(장기) 보존처리	78	19.1
보존기법의 개발과 보급	28	6.9
훼손자료의 복원 및 수리(대체본 제작 등)	8	2.0
전체	408	100.0

〈표 10〉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참여의향 관종별 교차표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전체
참여한다	88	43	26	30	187
참여하지 않는다	3	8	10	2	23
전체	91	51	36	32	210

〈표 11〉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 참여의향 동질적 부분집합 분석표

	관종별	N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분집합	
			1	2
Duncan a,b	공공도서관	91	1.03	
	전문도서관	32	1.06	
	대학도서관	51	1.16	1.16
	학교도서관	36		1.28
	CTT 유의확률		.067	.060

Q6은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 참여이유에 대한 문항으로 5가지의 범주의 항목으로 구조화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0.5%가 자관의 보존공간 부족문제 해결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공동활용성 증대, 도서관 문헌의 장기 보존, 보존관리 인력과 운영예산 절감, 도서관 문헌의 공동이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항목에 대한 별도의 기술내용은 없었다(〈표 12〉 참조).

Q7은 Q5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한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총 23건에 대하여 관종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 중심의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공공도서관에서는 운영주체 부정적 의견으로 자료보존은 국가가 기관을 정해서 운영 효율적이라고 응답하였고, 대학도서관은 자산 및

평가 문제, 자체보존 추진, 참여기관간 이해상충, 여건조성 미흡, 인력/예산 부족, 학교도서관에서는 필요성 인식 부족, 도서관 및 이용자 특성, 담당자 업무과중, 전문도서관에서는 기관의 특성과 효율성 부족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기술하였다(〈표 13〉 참조).

Q8은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기여도에 대한 문항으로 공동보존과 공동활용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Q8.1 자료의 공동보존과 Q8.2 자료의 공동활용 두 가지로 구분하여 답변을 수집하였다. 응답결과 평균점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공동보존의 기여도가 공동활용의 기여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4〉 참조).

〈표 12〉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 참여이유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자관 보존공간 부족문제 해결	127	60.5
자료의 공동활용성 증대	37	17.6
도서관 문헌의 장기 보존	17	8.1
보존관리 인력과 운영예산 절감	14	6.7
도서관 문헌의 공동이용	12	5.7
기타	3	1.4
전체	210	100.0

〈표 13〉 관종별 공동보존자료관 불참이유 및 핵심요인

관종	불참이유	핵심요인
공공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보존은 국가가 기관을 정해서 운영 효율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부적절
대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특성상 관외 자료 자관자료로 불인정 • 도서관 내 보존 공간을 만들 계획 • 공동관리에 대한 장애요소(이해상충, 인력·예산 부족) • 도서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및 평가 문제 • 자체보존 추진 • 참여기관간 이해 상충 • 여건조성 미흡 • 인력/예산 부족
학교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의 자료와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중복 • 인력 문제, 1인 도서관으로 이미 업무량 과다 • 학교도서관은 규모와 예산면에서 부적절 • 학교도서관은 최신성유지가 주목적이므로 • 이용자의 특성상 자료를 직접 보고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인식 부족 • 도서관 및 이용자 특성 • 담당자 업무과중
전문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보존자료 활용에 제한되는 기관 • 보존의 효율성 낮음: 공간 예산 자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특성 • 효율성 부족

〈표 14〉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기여도

항목	빈도	유효퍼센트
1. 매우낮음	7	3.3
2. 낮음	14	6.7
3. 보통	36	17.1
4. 높음	85	40.5
5. 매우높음	68	32.4
전체(평균 3.92)	210	100.0

공동보존 기여도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1. 매우낮음	7	3.3
2. 낮음	23	11.0
3. 보통	48	22.9
4. 높음	87	41.4
5. 매우높음	45	21.4
전체(평균 3.67)	210	100.0

공동활용 기여도

Q9는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문항으로 5가지 범주의 항목으로 구조화 하였다. 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관자료의 소유권정책 합의, 관종별 도서관의 이해관계 상충, 개별도서관과 운영관리시스템의 호환성의 순으로 공동보존자료관의 업무추진시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것

〈표 15〉 공동보존자료관 추진시 장애요인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인력 및 예산의 확보	97	46.2
이관자료의 소유권 정책 합의	32	15.2
관중별 도서관의 이해관계 상충	30	14.3
개별도서관과 운영관리시스템의 호환성(범용성)	26	12.4
개별도서관 업무증가로 인한 비협조	25	11.9
전체	210	100.0

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사서들의 인식분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종합인식도에서는 필요성/시급성/인지도 순으로 필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인식도는 관중별 특성과 관계없이 높은 반면에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인지도는 학교도서관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른 관중과의 평균비교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 학교도서관 응답자의 27%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결과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 정책의 성공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참여 대상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의 경우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 정책수립시 인식도 제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보존자료관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크게 공동보존과 공동활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공동보존의 측면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최우선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보존과 활용이라는

것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정책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자료의 공동보존에 대한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인력 및 예산의 확보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관자료의 소유권 정책에 대한 합의, 관중별 도서관의 이해관계 상충, 참여도서관과 운영관리시스템의 호환성 등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관중별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과 운영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부정적 인식에 대한 현실적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3.2 운영조직 및 예산 분야

공동보존자료관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조직과 예산이다. 공동보존이라는 단어에서도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운영조직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Q10 공동보존 모형의 적합성, Q11, Q12 운영주체의 적합성, Q13 공동보존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필요성, Q14 위원회의 중점적 역할, Q15, Q16번 문항에서는 공동보존자료관의 예산의 재

원별 분담비율에 대해 물었다.

Q10은 광역단위 공동보존을 위한 모형 적합도에 관한 문항으로 관중통합 공동보존 모형과 관중별 공동보존 모형 2가지 유형으로 구조화하였다. 응답결과 관중통합 공동보존 모형 62.9% 관중별 공동보존 모형 35.7%로 관중통합 모형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관중별로는 학교도서관의 경우 관중통합 공보존모형보다 관중별 공동보존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Q11은 광역단위 공동보존 운영주체 적합도에 관한 문항으로 지역대표도서관이 72.9% 참여도서관 컨소시엄 14.8% 지역거점대학도서관 7.1% 별도의 비영리법인 4.3%로 나타났다. 모든 관중에서 지역대표도서관의 적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는 참여도서관 컨소시엄 형태의 운영주체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17〉 참조).

Q12는 Q11에서 선택한 운영주체가 적합한 이유에 대한 문항으로 총 171건의 응답내용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운영주체별 키워드 빈도를 측정하여 핵심요인을 도출한 결과 지역대표도서관은 대표성, 추진 용이성, 효율성, 지역거점대학은 기관 및 자료 특성, 위치·규모의 적합성, 비영리법인이나 컨소시엄은 책임성과 연계성 측면에서 운영주체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관중별 공동보존 모형과 공동보존 운영주체 적합도 응답결과를 조합하여 교차분석표를 작성하였다. 응답결과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공동보존 모형과 운영주체 적합도를 동시에 나타내는 분석표에서는 공동보존 모형과 공동보존 운영주체로 관중통합 공동보존 모형의 지역대표도서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107건(51%)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표 16〉 관중별 공동보존 모형 적합도 빈도표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빈도(비율)
관중통합 모형	59	33	14	26	132(62.9%)
관중별 모형	31	18	21	5	75(35.7%)
기타	1	0	1	1	3(1.4%)
전체	91	51	36	32	210(100%)

〈표 17〉 관중별 공동보존 운영주체 적합도 빈도표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빈도(비율)
지역대표도서관	77	25	23	28	153(72.9%)
컨소시엄	10	11	7	3	31(14.8%)
지역거점대학	2	9	4	0	15(7.1%)
비영리법인	1	6	2	0	9(4.3%)
기타	1	0	0	1	2(1%)
전체	91	51	36	32	210(100%)

〈표 18〉 공동보존 모형과 공동보존 운영주체 적합도 교차분석표

항목	지역 대표도서관	지역거점 대학도서관	별도의 비영리법인	참여도서관 컨소시엄	빈도(비율)
관중통합 공동보존 모형	107	6	6	13	132(62.9%)
관중별 공동보존 모형	45	9	3	18	75(35.7%)

운영주체로 적합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동보존 운영주체로서 지역대표도서관은 대표성, 추진 용이성, 효율성, 비영리법인+컨소시엄은 책임성, 연계성, 지역거점대학도서관은 기관 및 자료의 특성, 위치와 규모를 핵심요인으로 도출하였다(〈표 19〉 참조).

Q13은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문항으로 관중별 그룹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중별로 공동보존자료관 위원회 필요성에 대한 응답평균은 공공도서관이 가장 낮게 학교도서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20〉 참조).

Q14는 광역단위 공동보존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항으로 7가지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공동보존자료관의 역할 및 기능(자료이관 기준)이관자료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운영예산의 사용 계획 및 결산)이관자료의 디지털아카이빙(이관자료의 소유권 정책 순으로 응답 하였으며 구체적 역할로는 자료이관의 기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Q15는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경비의 분담에 관한 문항으로 비용의 유형을 이관비용, 운영비용, 이용비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표 19〉 공동보존자료관의 운영주체 유형별 핵심요인

운영주체(171)	키워드 빈도	핵심요인 도출
지역대표도서관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성(37) • 효율성·공공성·책임성(24) • 도서관법 근거조항(22) • 인력·예산 확보 용이성(20) • 추진 용이성(18) • 이용 접근성(13) • 시설 및 공간 확보(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성 ⊙ 추진 용이성 ⊙ 효율성 ○ 이용 접근성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성, 참여연계성(7) • 독립성(4) • 효율성(4) • 공무원 정원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성 ⊙ 연계성 ○ 독립성 ○ 효율성
지역거점대학도서관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도서관 자료 특성(5) • 위치의 적합성(3) • 효율성(3) • 대표성 • 예산확보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및 자료 특성 ⊙ 위치·규모 적합성 ○ 효율성 ○ 대표성

〈표 20〉 관종별 공동보존자료관 위원회 필요성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빈도(비율)
1. 전혀 필요없다	3	0	0	0	3(1.4%)
2. 필요없다	5	4	1	0	10(4.8%)
3. 보통	18	4	2	2	26(12.4%)
4. 필요하다	41	24	16	14	95(45.2%)
5. 매우 필요하다	24	19	17	16	76(36.2%)
전체(평균 4.10)	91(3.86)	51(4.14)	36(4.36)	32(4.13)	210(100%)

〈표 21〉 공동보존자료관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중점사항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공동보존자료관의 역할 및 기능	101	48.1
자료이관 기준	54	25.7
이관자료의 서비스 대상과 범위	20	9.5
운영예산의 사용계획 및 결산	16	7.6
이관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10	4.8
이관자료의 소유권	9	4.3
전체	210	100.0

〈표 22〉 공동보존자료관 비용유형에 따른 항목별 빈도표

구분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① 이관비용	운영주체	87	41.4
	참여도서관	42	20.0
	운영주체+참여도서관	81	38.6
	전체	210	100.0
② 운영비용	운영주체	154	73.3
	참여도서관	7	3.3
	운영주체+참여도서관	49	23.3
	전체	210	100.0
③ 이용비용	운영주체	107	51.0
	참여도서관	26	12.4
	운영주체+참여도서관	77	36.7
	전체	210	100.0

응답결과 모든 유형에서 운영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도서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는 이관비용>이용비용>운영비용 순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참조).

Q13과 Q14를 종합해 보면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위원회는 이관자료의 기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예산(Q15와 Q16)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참여주체의 비용부담의 비율은 이관비용>이용비용>운영비용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원별로는 국비>지방비>운영주체>참여도서관 순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확보와 분담 문제는 사업추진의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주로 결정되므로 운영조직의 모형과 운영주체의 특성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운영조직 및 예산분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광역단위 도서관 자료의 체계적인 공동보존을 위한 모형으로 관중통합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중별로는 학교도서관의 경우 관중통합 공동보존 모형보다 관중별 공동보존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관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보존 모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세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예산의 확보와 분담 문제는 사업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와 반영 여부가 결정되므로 운영모형과 운영주체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운영모형의 설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관자료의 대상기준은 대부분 자관의 보존공간 확보를 위한 이관대상 자료로 저이용 자료, 중복자료, 오래된 자료, 구판자료와 이용이 불가능한 자료인 폐기대상 자료나 파오손 자료이다.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동보존자료관의 이관대상 자료는 참여도서관의 보존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관자료의 유형으로는 단행본을 중심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관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정책과 관련하여 비이전형 18.1% 이전

형이 50%로 나머지 응답도 선택적 이전이나 공동소유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80% 이상의 사서가 공동보존자료관이 이관자료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유권 이전시 재산권 문제와 도서관 평가시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방안으로 참여기관간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를 통해서 소유권 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법제상의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3 운영정책 분야

Q17은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의 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8개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우선순위 3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응답결과 원형보존이 중요한 자료>이용율이 저조한 자료>매체변환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복본 또는 내용의 대부분이 중복성인 자료>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개정판이 발간된 경우의 구판자료>폐기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전문적인 수리복원이 필요할 정도로 파오손된 자료 순이다(<표 23> 참조).

Q18은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자료의 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7개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2개 항목 선택이 가능하며 누적빈도를 사용하였다. 응답결과 단행본>고문헌자료>학술잡지>보고서>도안(지도, 도면)>학위논문>사진/그림 순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표 23〉 공동보존자료관 이관자료 기준

항목	빈도(누적가중치)	유효 퍼센트
원형보존이 중요한 자료(회귀서, 귀중서 등)	360	29.6
이용율이 저조한 자료	202	16.6
매체변환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197	16.2
복본 또는 내용의 대부분이 중복성인 자료	146	12.0
발행연도가 오래된 자료	125	10.3
개정판이 발간된 경우의 구판자료	77	6.3
폐기대상으로 선정한 자료	55	4.5
전문적인 수리복원이 필요할 정도로 파손된 자료	54	4.4
전체	1,216	100.0

〈표 24〉 공동보존자료관 이관자료의 유형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단행본	147	38.7
고문헌자료	97	25.5
학술잡지	43	11.3
보고서	34	8.9
도안(지도, 도면 등)	31	8.2
학위논문	15	3.9
사진/그림	13	3.4
전체	380	100.0

〈표 25〉 공동보존자료관의 이용대상

항목	빈도	유효 퍼센트
광역시도 소재 모든 도서관	71	33.8
전국의 모든 도서관	71	33.8
참여 도서관	64	30.5
기타	4	1.9
전체	210	100.0

Q19는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이용대상 도서관을 묻는 문항으로 참여도서관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 모든 도서관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Q20은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과 참여도서관의 이관자료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문항으로 응

답 내용에 대해 이전형, 비이전형, 공동보유형, 선택적 이전형 4가지 항목으로 재구조화 하였다. 이전형 50%, 선택적 이전형 19.5%, 비이전형 18%, 공동소유형 12.4% 순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모든 관종에서 이관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보존자료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과 비이전형이 동일한 빈도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Q21은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 이관자료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문항으로 자유기술 형태이다. 운영주체별 총 123건의 응답내용에 대해 키워드 빈도를 분석하였고 소유권 이전과 비이전에 다른 문제발생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소유권 이전시 문제발생 요인으로는 재산권 문제와 평가시 불이익, 귀중본 분실·훼손시 책임문제, 공

동보존자료관 참여 소극적, 향후 기관여건 변화로 인한 분쟁 발생을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소유권 비이전시 문제발생 요인으로는 보존자료관 자료관리 효율성 저하, 보존관리 비용분담 문제, 자료이용 우선순위 문제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발생 요인에 대한 의견으로 참여기관간 협의를 통한 소유권 규정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제상의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표 27〉 참조).

〈표 26〉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이용대상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빈도	유효퍼센트
이전형	55	17	21	12	105	50.0
선택적 이전형	15	12	7	7	41	19.5
비이전형	15	17	3	3	38	18.1
공동보유형	6	5	5	10	26	12.4
전체	91	51	36	32	210	100.0

〈표 27〉 이관자료의 소유권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운영주체(123)	응답키워드 빈도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역대표 도서관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문제, 평가시 불이익(13) • 보존자료관 자료관리 효율성 저하(9) • 귀중본 분실·훼손시 책임문제 발생(5) • 보존관리 비용분담 문제 발생(3) • 공동보존자료관 참여 소극적(6) • 대상자료에 따라 소유권 이전갈등 	<p>〈소유권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문제, 평가시 불이익(31) • 귀중본 분실·훼손시 책임문제 (18) • 공동보존자료관 참여 소극적(10) • 기관여건 변화로 인한 분쟁발생(2) <p>〈소유권 비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자료관 자료관리 효율성 저하(9) • 보존관리 비용분담 문제(3) • 자료이용 우선순위 <p>〈해결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를 통한 소유권 규정 합의 • 공동소유권 부여
대학도서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문제, 평가시 불이익(6) • 도서관의 자료이관 참여 소극적(2) • 향후 기관여건 변화로 인한 분쟁발생(2) 	
학교도서관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중본 분실·훼손시 책임문제 발생(10) • 재산권 문제, 평가시 불이익(3) • 공동보존자료관 참여 소극적 • 저작권문제 발생 • 자료이용 우선순위 	
전문도서관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문제, 평가시 불이익(9) • 귀중본 분실·훼손시 책임문제 발생(3) • 도서관의 자료이관 참여 소극적 	

3.4 운영관리시스템 및 디지털아카이빙 분야

Q22는 공동보존자료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별도 구축 필요성에 관한 문항으로 분석한 결과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이 별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의 순으로 별도 구축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Q23은 공동보존자료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고려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는 참여기관 LAS와의 호환성>접근 및 사용의 편리성>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시스템의 속도 및 성능>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순으로 나타났다(〈표 29〉 참조).

Q24는 공동보존자료관의 자료관리시스템 구

축시 중점적 구현기능에 관한 문항으로 5개 범주로 구조화 하였으며 2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빈도분석은 누적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중점적 구현기능으로는 통합자료검색시스템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대차 시스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시스템, 참여도서관 공동목록 시스템, 저작권(DRM) 관리시스템 순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0〉 참조).

Q25는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에서 우선적으로 디지털화를 해야할 자료에 대한 문항으로 6개 범주로 구조화 하였다. 빈도분석은 누적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회귀본·귀중본자료와 지역특성화 자료가 84.5%를 차지하였으며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수리 및 복원자료>소속기관 발행자료>인쇄본 학술잡지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표 28〉 관종별 통합자료관리시스템 별도 구축 필요성

항목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응답수	유효퍼센트
1. 전혀 필요없다	4	0	1	0	5	2.4
2. 필요없다	4	1	3	0	8	3.8
3. 보통	19	3	5	1	28	13.3
4. 필요하다	36	24	13	9	82	39.0
5. 매우 필요하다	28	23	14	22	87	41.4
전체응답수(평균)	91(3.88)	51(4.35)	36(4.00)	32(4.66)	210(4.13)	100.0

〈표 29〉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시 우선적 고려사항

항목	빈도(누적가중치)	유효 퍼센트
참여기관 LAS와의 호환성	791	34.8
접근 및 사용의 편리성	592	26.0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484	21.3
시스템의 속도 및 성능	262	11.5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147	6.5
전체	2,276	100.0

〈표 30〉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시 중점적 구현기능

항목	빈도(누적가중치)	유효 퍼센트
통합자료검색시스템	160	40.2
상호대차 시스템	73	18.3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시스템	69	17.3
참여도서관 공동목록 시스템	63	15.8
저작권(DRM) 관리시스템	33	8.3
전체	398	100.0

〈표 31〉 디지털화 대상자료 우선순위

항목	빈도(누적가중치)	유효 퍼센트
희귀본, 귀중본	181	45.1
지역특성화자료	158	39.4
저작권 문제가 없는 자료	26	6.5
수리 및 복원자료	19	4.7
소속기관 발행자료	11	2.7
인쇄본 학술잡지	6	1.5
전체	395	100.0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 및 디지털 아카이빙 분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시 호환성과 편리성 등 담당사서의 업무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능 구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디지털 아카이빙에 있어서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하는 자료로는 지역특성화 자료와 희귀본, 귀중본이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우선적인 디지털화의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운영관리시스템에서는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보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료의 저작권과 이용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결론

첫째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식 차이에 있어서 사서들의 종합적 인지도는 관종별 특성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의 사서들은 공동보존자료관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보존자료관 참여의향은 학교도서관 응답자의 27%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공동보존자료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자료의 공동활용의 측면보다 공동보존의 측면에 대한 기여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관자료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기능을 분리할 필요는 없지만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정책수립시 자료의 공동보존 기능에 더 중

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자관의 보존공간 부족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자산 및 평가 문제, 참여기관간 이해 상충, 인력/예산 부족, 담당자의 업무과중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둘째 광역단위 공동보존 모형의 경우 관중통합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광역단위 공동보존자료관의 공동보존 모형과 운영주체의 적합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운영주체는 지역대표도서관이 운영모형은 관중통합 공동보존 모형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위원회는 이관자료의 기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보존자료관의 이관대상 자료는 참여도서관의 보존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단행본 중심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서들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정책에서 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접근성 문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관자

료의 소유권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이전형이 18.1%인 반면에 이전형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한 관중별 사서의 의견으로는 공동보존자료관 운영관리시스템의 별도 구축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관중별로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구축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호환성>접근성 및 편리성>안정성 및 보안성>속도 및 성능>디자인 및 UI로 나타났다. 호환성과 편리성 등 담당자의 업무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자관과 공동보존자료관의 통합검색시스템과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대차시스템, 공동목록시스템을 중점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동보존자료관에서 우선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지역특성화자료와 희귀본, 귀중본이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관중별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조사 분석결과 는 도서관 자료의 공동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보존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1] 강은영 (2018).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193-217.
- [2] 강은영, 장덕현 (2017).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역 공동보존서고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207-232.
- [3] 광승진, 노영희, 강은영, 김정택, 곽우정 (2020). 충남도서관 공동보존자료관 운영정책 수립을 위한

- 사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4), 27-51.
- [4]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1.04.26.) 출처: <http://www.libstat.go.kr>
- [5] 노지현, 조용완, 이제환 (2013). 지역 거점형 공동보존서고의 건립 및 운영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167-195.
- [6]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7] 서혜란, 김선애, 강은영 (2015). 공공도서관 자료보존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111-134.
- [8] 신지연, 김유승 (2011).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129-150.
- [9] 윤희운 (2013).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타당성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5-26.
- [10] 윤희운 (2013).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모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51-74.
- [11] 윤희운, 장덕현 (2021). 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285-303.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Eun Yeong (2018). A study on the operation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university libraries in other count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materials deposit and servi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193-217.
- [2] Kang, Eun Yeong & Chang, Durk-Hyun (2017). A study on a regional cooperative preservation program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207-232.
- [3] Kwak, Seung-Jin, Noh, Younghee, Kang, Eun Yeong, Kim, Jeong-Taek, & Kwak, Woojung (2020). A study on the awareness of libraria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of the joint preservation archive in Chungnam Librar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4), 27-51.
- [4]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1.04.26.) Available: <http://www.libstat.go.kr>
- [5] Rho, Jee-Hyun, Cho, Yong-Wan, & Lee, Jae-Whoan (2013). Developing strategies for a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y at a regional leve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167-195.
- [7] Suh, Hyeran, Kim, Sun Ae, & Kang, Eun Yeong (2015). The status quo and tasks of the

- collection preservation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2), 111-134.
- [8] Shin, Ji-Yeon & Kim, Youseung (201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for the cooperative repository libraries based on regional centra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3), 129-150.
- [9] Yoon, Hee-Yoon (2013). Feasibility analysis of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5-26.
- [10] Yoon, Hee-Yoon (2013). A model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aborative repository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3), 51-74.
- [11] Yoon, Hee-Yoon & Chang, Durk Hyun (2021).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shared storage for public libraries in Seoul Metro A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1), 285-303.